

## 당리당락 널뛰기 정책에 골병드는 현수막 업계

### 6·3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선거 현수막 '특수' 실종 공직선거법 여파... "갈팡질팡 정책으로 현수막 혐오만 남아" 한숨



6·3 지방선거와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현수막 집중점검으로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는 모습들.

선거를 통해 언제나 특수를 누려왔던 현수막 업계가 이번 '6·3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지금 이례적인 침체를 겪으며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통상 선거 3~4개월 전이면 후보자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거리 게시 현수막과 선거사무소 외부 대형 현수막, 정당 홍보용 출력물이 대량 발주되며 출력업체와 후가공업체, 설치업체까지 연쇄적인 물량 증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오히려 설 연휴에 늘 걸리던 정당의 새해 인사 현수막 물량까지 씨가 마르는 기현상마저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여파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

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현수막 등의 인쇄물도 게시할 수 없다. 인사장, 벽보, 사진 등의 인쇄물도 게시할 수 없다.

지난 2월 2일이 선거 120일 전일이었기 때문에 선거 현수막은 물론, 정당들이 명절을 앞두고 으레 걸었던 새해 인사 현수막 물량까지 싹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설치된 현수막까지 급히 철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현수막 제작업체들은 물론 원단이나 잉크 등 소재 공급사들에게서도 깊은 한숨이 새나오고 있다.

선거, 특히 지방선거는 언제나 현수막 업계의 최대 빅 이벤트로 꼽혀왔다. 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시도 교육감 선거 등이 망라됨으로

써 대선이나 총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후보자가 나오기 때 문이다.

특히 2022년 선거까지는 후보자당 최대 48장의 현수막을 걸 수 있었던 까닭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선거를 앞두고 눈코뜰새없어야 할 업체들은 지금 멈춰선 장비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이다.

한 현수막 제작업체 대표는 "선거철 매출이 1년 매출의 30~40%를 차지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선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줄고 있다"며 "설비가 동물이 떨어지면서 고정비 부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작업체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필요할 땐 갑자기 선거 현수막 늘리는 법 개정을 해서 이에 대응하느라 제작 장비도 늘렸는데, 다음에는 줄이

는 법을 만들었다"며 "유불리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널뛰기식 현수막 정책에 제작업체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치권과 정부의 현수막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단 이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과 불만이 지난 수년간 누적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당 현수막 규제다. 정당 현수막은 원래 정치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일반 현수막과 다른 법 적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갈팡질팡 정책의 문을 열었다. 정부는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을 포함시키면서 정당 현수막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 되자 2024년 1월 한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설치 수량, 설치 기간 등을 일부 제한했다. 그럼에도 현수막 난립이 계속되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많다는 이유로 작년 11월에는 3년만에 규제 자체를 되돌렸다.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피해를 본 건 현수막 관련 업체들이다. 단순히 시장이 축소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 변화가 수시로 나타나면서 제작 인프라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시장의 어려움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대중적인 광고물인 현수막이 정치권의 이해타산 속에 어느 순간 혐오의 상징처럼 굳어지면서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 것도 업계 전체에 큰 상처가 됐다. 신한중기자

www.kointec.co.kr

**KOINTEC**  
(주)코인텍

27년 전통 점착 sheet & 필름제조  
UV·라텍스 전용필름

실사·수성 코팅지 솔벤트 프리 라텍스 전용소재  
칼라시트 (내부용/외부용) 인테리어 필름 창문용 (원도우필름)

(주)코인텍 본사/공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하오개길 38  
구.함양산업 TEL: 031764-1226-7 FAX: 031764-7186  
취급점문의 응석천 전무이사 010.3710.5778

특수채널 · UV평판출력 **국내최저가**

**(주)덕산**

30년 기술 노하우 최신장비 보유 기업  
채널/갈바/스텐/스카시/싸인탑/실사/아크릴가공

**T. 02-487-4142**  
F. 02-487-4162 웹하드. signj / 1234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7번길 96

**SPT투데이**  
www.sptoday.com

**광고문의**  
**010-4234-9917**

# 서울 중심 광고의 대안

서울로 향하는 소비자, 이동 경로 선점 광고 전략

## 인천시 광역버스 광고 사업권 획득

| 강남역 노선 200대

| 홍대입구역 · 신촌역 · 마포역 · 공덕역 · 서울역 노선 200대

## 인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광고 사업권 획득

## 수인분당선 전동차 광고 사업권 획득



### 버스 광고

인천 시내버스 외부 · 내부 광고  
 인천 광역버스 외부 · 내부 광고  
 인천 버스정류장 · 택시 광고  
 고양 · 파주 버스 외부 · 내부 광고

### 음성 광고

서울 수도권 시내버스 음성 광고  
 서울 수도권 광역버스 음성 광고

### 옥상 빌보드

우신빌딩 옥상 빌보드



#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 한국옥외광고센터, 7개 지자체 선정해 공공 광고물 개선 지원



공공 광고물 사례들.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지자체의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지원에 나선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공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지역 경관 품질을 높이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참여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지난 2월 2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옥외광고물을 중심으로 공공 영역의 시각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지역 경관 품질을 높이고, 주민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지정계시대, 디지털 광고물, 안내 및 안전 표시물, 주민센터 간판 등 공공 광고물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공모를 통해 7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각 1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또한 동일 금액(1억원)을 5대5 매칭 형태로 부담해 7개 지자체 기준 총 1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공모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7일 13시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 경관개선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지자체의 이전 참여사업(간판개선사업 등) 추진 성과,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 지자체 추진 역량 및 사업계획 구체성,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선정한다.

아울러 센터는 사업 결과물에 대한 기록 영상 제작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 점검과 사후 관리 방안 마련, 관련 자료 축적·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oo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관계자는 “공공 영역의 옥외광고물은 시민이 매일 접하는 생활환경의 핵심 요소”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디자인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도시 경관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 대구시,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확정 고시

## 동성로 일대 1.8km 보행로 대상... 광고물 규제 대폭 완화

대구시가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를 지난 2월 10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를 보행자 중심 미디어 명소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시는 동성로 28아트스퀘어, 옛 대구빌딩,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 옛 중앙출소소를 있는 1.8km 보행로를 특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건축물의 디지털 전광판 표시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성로 미디어 스트리트 조감도.

주요 내용은 벽면이용간판 설치시 2층 이상 23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 설치 가능 층수 완화, 3층 이상 23층 이

하 건물에 대해 옥상 간판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이다. 시에 따르면 각 건물에 설치되는 디

지탈 광고가 따로 또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광고 시스템을 적용해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미디어 스트리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미디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해 공공성도 높인다.

시 관계자는 “특정 건물이나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며 “이번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동성로가 디지털 기술과 보행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특례 과정에 국민 안전성 높인다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특례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

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

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전용 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해 규제 특례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및 치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대중교통 매체광고 양진텔레콤이 선도합니다

서울시내버스 음성광고 | 서울시내버스 내부 인쇄물 광고  
234호선 전동차내 음성광고 | 5678호선 전동차내 음성광고  
1234호선 승강장 음성광고 | 1234호선 디지털보드  
SRT수서·동탄·평택지체 | KTX 익산·정읍역 광고

[ 함께할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

경력, 나이제한 없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의 소유자

|주|양진텔레콤  
**YANGJIN**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1길 2 (잠실동, 양진빌딩) T 02.412.4130 F 02.412.4139 www.yangjintel.com

# 한울에서 프린터/기계



## 라텍스 프린터

냄새,유해물질없는  
친환경프린터  
프린터가 다 해주는  
최첨단자동프린터



## 슈마 커팅기

메이드인 벨기에  
작업시작이 편하고  
원단이 들어지지 않는  
세계최고 돔보커팅기



## 수성 프린터

소재폭 자동측정 센서  
1헤드/2헤드  
4헤드/6헤드  
장출력 길이오차 X  
뛰어난 헤드정렬



## 평판 커팅기

메이드인 벨기에  
칼날 3축 자동 보정  
교체로 1분안쪽 OK  
세계최고 반커팅틀



## 플라즈마 UV

4\*8원장 직접출력  
특히 출원 플라즈마  
유리/스텐 OK  
잉크까집 없는 초강력  
부착력. 노~스트레스!



## 에코솔벤트 프린터

소재폭 자동측정  
미디어센서  
1헤드/2헤드/4헤드  
4칼라 및 8칼라 구성  
뽕한 고채도 색상 구현



## 양면 UV 프린터

코니카 1024i  
세계특히 양면프린터  
국내 50여대 판매  
양면 핀이 맞는  
유일한 프린터



## UV 프린터

소재폭 자동측정 센서  
1헤드/2헤드/4헤드  
4칼라 및 화이트잉크  
뛰어난 헤드정렬  
밴딩없고 고해상도  
코팅 없이 OK

# 판매·AS 합니다!

**hanwool**



**1390레이저**

1300\*900mm  
아크릴비금속 레이저  
10mm까지 클린컷  
150w/180w/카메라

**hanwool**



**스텐갈바밴더기**

기본모델 20-200mm  
대형모델 20-400mm  
바이트컷팅(1자컷)  
용접채널 필수밴더기

**hanwool**



**1325레이저**

1300\*2500mm  
아크릴비금속 레이저  
20mm까지 클린컷  
150w/300w/500w

**hanwool**



**기본CNC**

1300\*2500mm  
카메라CCD장착가능  
튼튼한바디/강한배큘  
훌륭한 완성도/디자인

**hanwool**



**RF메탈관레이저**

1300\*2500mm  
아크릴비금속 레이저  
30mm 클린컷/마킹  
300w영국로핀/CCD

**hanwool**



**틀체인지CNC**

1300\*2500mm  
4슬롯/8슬롯/CCD  
튼튼한바디/강한배큘  
훌륭한 완성도/디자인

**hanwool**



**멀티레이저**

1대로 OK  
금속 + 비금속 겸용  
컷팅, 마킹, 용접까지  
1300\*900mm

**hanwool**



**용접기**

테이블용접기 : 잔넬용  
파이버용접기 : 갈바용  
  
탁상용 / 핸드용

# 또 간판 사망 사고... 간판 주인과 건물주 검찰 송치

## 무단 설치한 간판 강풍에 떨어지면서 길가던 행인 덮쳐



무단 설치된 간판이 추락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의정부시 호원동의 현장 모습.

간판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간판 주인과 건물주는 간판과 건물을 부실 관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인도를 걷던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의정부경찰서는 24일 간판 소유자인 이발소 업주 A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건물주 B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은 강풍주의보

가 발효된 상태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약 9m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간판을 관할 의정부시청에 신고없이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판은 가로 12m, 세로 2m 크기로 현행법상 가로 10m를 초과하는 간판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건물주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면서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건물주도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국내 항공편 101만대로 사상 최대치

## 전년 대비 6.8% 증가... 인천, 제주, 김포 순으로 많아

지난해 국내 항공 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이같은 항공 수요는 올해도 계속 이어져 물류·

관광·광고 산업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선과 국

제선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6.8% 증가해 101만3,83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0만대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선 교통량이 78만8,531대로 77.8%를 차지했다.

이는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매일 국내 하늘을 오간 셈이다. 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제주공항 487대(0.4%↓), 김포공항이 390대(0.2%↓)로 뒤를 이었다.

# 신개념 돌출 포인트

### 1. 무드 포인트

- 규격 : 600파이 (돌출 / 단면)
- 특징 : 원형 등기구 테두리에 다양한 색상을 갖도록 하여 다중컬러의 발광색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엘이디포인트
- 테두리 색상 : 적, 청, 녹, 월, RGB(택1) 각 색상 점멸가능
- ※ 특허등록 / 디자인등록 제품



### 2. 반/반 포인트

- 규격 : 가로(600) \* 세로(400) / 가로(400) \* 세로(600)
- 특징 : 좌측(A) → 우측(B) → 전체화면(A+B) 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점등되는 포인트
- ※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제품



### 3. 테두리 포인트

- 규격 : 스텐 원형 600파이 (돌출 / 단면)
- 특징 : 택1 - 원형돌출 테두리에 볼LED가 좌우로 회전하며 돌아가는 스텐포인트 / 택2 - 원형돌출 테두리에 볼LED가 점멸 or 디밍되는 스텐포인트
- 볼LED 색상 : 적, 청, 녹, RGB(택1)
- ※ 실용신안등록 제품



제품 및 가격문의 : 각 지역 광고자재점

자세한 규격 및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NAVER**

hanwool

# 3200폭의 새로운 기준

## X3-3200

옥외광고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

- 수성/에코솔벤/UV 선택
- 엡손 i3200 잉크별 맞춤 헤드 (4헤드 구성)
- 소재 폭 자동 측정 미디어 센서 기본 구성
  - 에어샤프트 소재 공급 및 감기미 포함
- 자동 피더 테이크업 방식 듀얼 롤 거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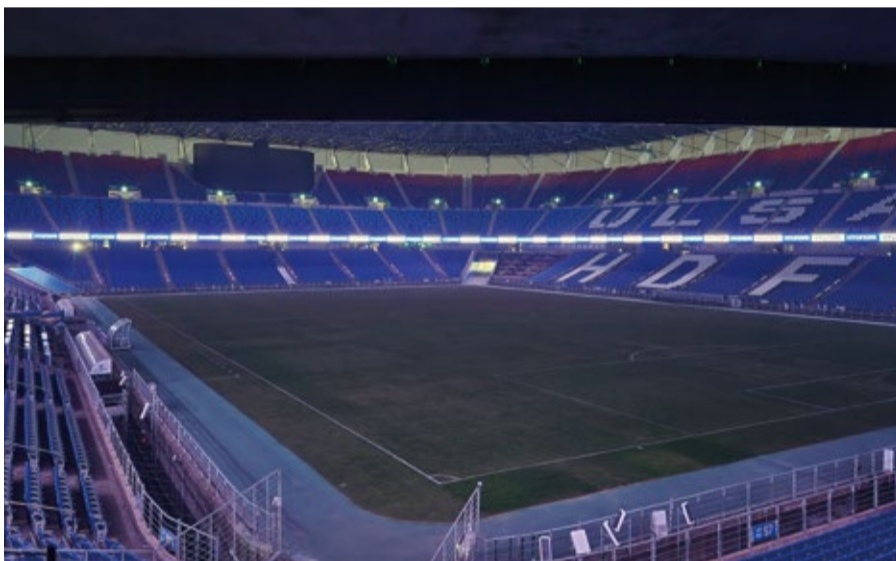
문의 : 010-2513-0594 / 한철기 이사

# 울산HD, K-리그 최초 360도 리본 디스플레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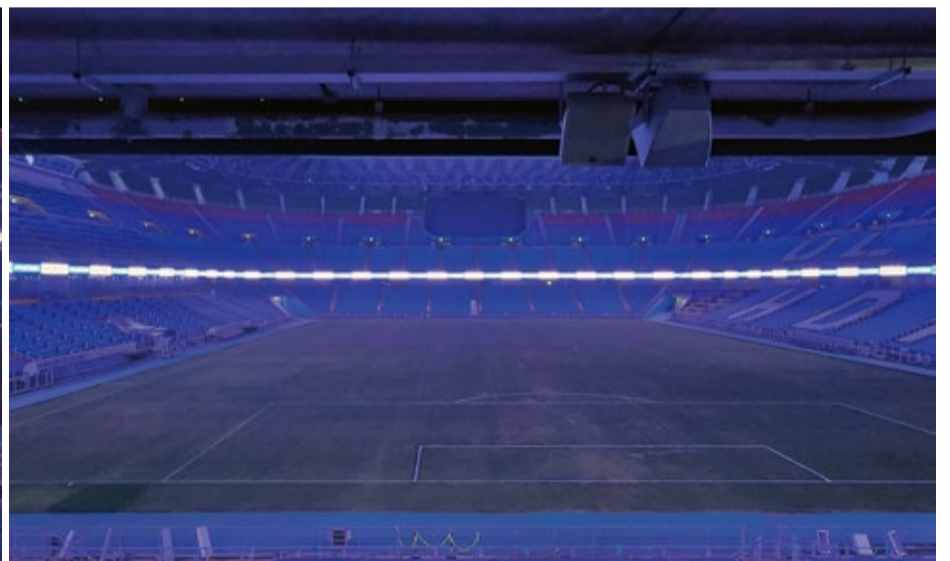
아이딘컴의 기술력으로 총길이 479m의 압도적 화면 구현  
관중석 전방위 커버하는 맞춤형 설계로 경기 몰입감 극대화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 새로 설치된 LED 리본 디스플레이.



야간에 보이는 모습.



K리그 최초로 경기장 내 초대형 리본 디스플레이 광고판(Ribbon LED Display Board)이 등장했다.

울산시와 울산HD FC는 최근 홈구장인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 국내 최초로 360도 LED리본 디스플레이 구축을 완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본 디스플레이는 관중석 상단이나 1층과 2층 사이 발코니 둘레를 따라 길게 설치되는 띠 형태의 LED전광판을 지칭하는 용어다. 경기장 내부를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감싸듯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 미국 NBA 경기장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영국 EPL 축구 경기장이나 NFL 경기장 등으로도 확대 설치되고 있는 추세다.

금번 문수경기장에 설치된 LED 리본 디스플레이 보드는 관중석 1층과 2층 사이 미들 데크를 따라 경기장을 360도로 자연스럽게 감싸는 형태로 설치됐다. 경기장 4면을 연결해 자연스럽게 원형 구조를 이루도록 했다.

총길이 479.36m에 달하는 띠 형태의 LED전광판이 관중석 전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렬한 시각적 임팩트를 구현한다. 또한 관중이 경기장 어느 좌석에 앉아 있던 디스플레이에 노출되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실시간 점수와 하이라이트 장면 등 경기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중요한 순간 관중들의 응원을 유도하는 화려한 그래픽 아트도 송출된다.

구단측은 효과적인 매체 운영을 위해 유럽 축구 리그와 북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보편화된 운영 사례를 분석, 국내 환경에 맞는 활용 모델을 구축했다. 관람 동선 및 시설 안내, 이벤트 연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광고 측면에서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화면 구조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영상 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롭고 주목도 높은 광고를 원하는 브랜드들에게서 좋은 반응이 나올 것으로 구

단측은 기대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360도 리본 디스플레이는 360도로 이어지는 화면 구조를 통해 이전에 없던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한다”며 “실시간 경기 정보부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관중들의 관람 경험을 더욱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광고용 LED전광판 선도기업 위상 재확인

아이딘컴은 지난 2002년 창립한 이후 25년간 LED 전광판 업계를 선도해 온 업체다. 특히 국내 첫 초대형 세로 LED전광판인 신사동 S&S전광판을 필두로 세로형·커브드 등 특수 구조의 LED전광판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국내 광고용 특수 구조 LED전광판 중 30~40% 가량은 이 회사의 기술을 통해 완성됐다.

특히 지난해 말 중소기업 최초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광고매체인 세

광미디어의 제작·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쾌거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세광미디어는 지금까지 설치된 자유표시구역 매체 10여기 중 중소기업이 직접 수주·제작·설치한 첫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이번 울산문수축구경기장 360도 리본 디스플레이 프로젝트까지 완성하면서 국내 대표 LED전광판 기업으로서의 기술력과 명성을 입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이딘컴 관계자는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적인 장소인 문수축구경기장에 조성되는 리그 최초의 360도 리본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공급했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경기장 맞춤형 설계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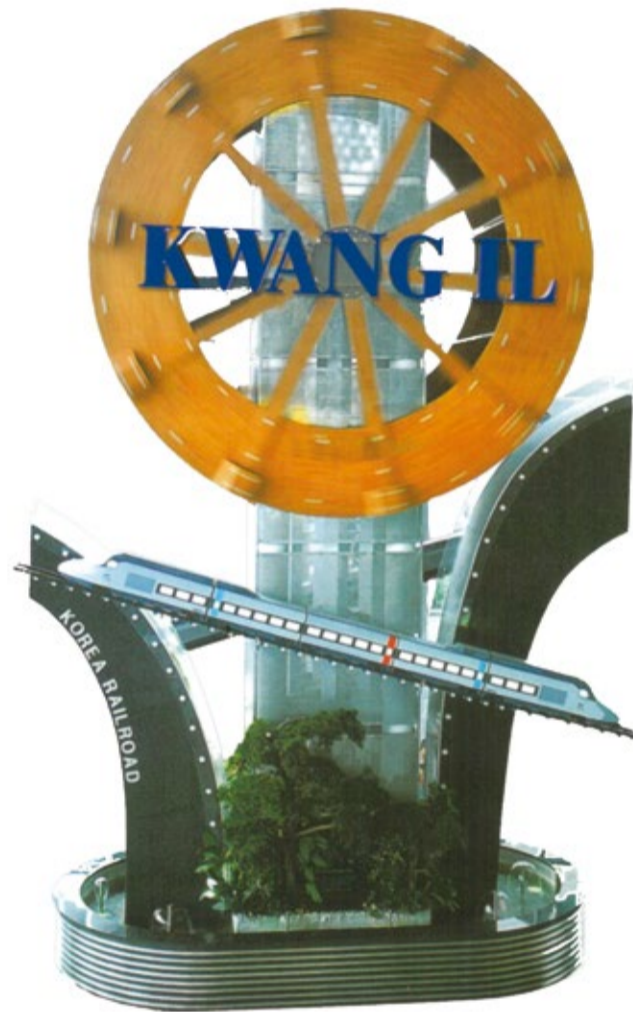
그는 이어 “팬들이 언제나 생생한 화면을 볼 수 있는 영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와 운영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중 기자



**(주) 광일**  
KWANGIL CO., LTD.

Advertising Culture Leader  
**KWANG IL**



**광고 50여년!**

오직 이 길만이 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걸어온 50여년의 광고 인생길  
광고인의 자긍심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광일프라자 / <http://www.kiad.co.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2길 23 광일빌딩 / TEL : 02)2248-2939 / FAX : 02)2242-0037

#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디지털로 변신

에스엘엠앤씨, 5개 역사에 '와이드비전 싱크' 론칭  
디지털과 아날로그 광고 결합... 설득력 높은 광고 메시지 전달



양재역과 잠실역에 설치된 '와이드비전 싱크'.

서울 지하철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새로운 스크린도어 광고가 등장했다. 지하철 1~4호선 스크린도어 광고 운영업체 에스엘엠앤씨는 신규 디지털 광고 '와이드비전 싱크(Wide Vision Sync)'

를 정식 론칭했다고 최근 밝혔다. 와이드비전 싱크는 기존 스크린도어 상단의 아날로그 광고물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개선한 매체다. 신규 디지털 광고의 화면 규격은 3,775×750mm로 풀HD급의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이 디지털 광고와 하단의 실사출력 조명광고(2,520×1,620mm)가 1세트로 묶여 판매되는 형태다. 주목도와 임팩트가 뛰어난 영상광고와 정보 제공에 용이한 아날로그 광고의 연계를 통해 보다 설득력있는 광고가 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행선안내기와 같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수의 역에 일괄 송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단일 매체 또는 역사 단위로 판매되는 점유형 광고라는 점이다. 역사 단위로 광고를 집행할 경우 공간을 일종의 브랜드존으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들이 짧은 동선 안에서도 몰입도 높은 광고를 경험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와이드비전 싱크는 지하철 이용객의 시선 흐름과 영상 중심 콘텐츠 소비 환경을 분석해서 기획한 미디어"라며 "승강장 정면 시야를 넓게 점유해 순간 몰입도가 높은 와이드형 디지털 광고와 반복적 정보 제공에 유리한 아날로그 매체의 장점을 결합시킨 상품으로, 일반적인 스크린도어 광고에 비해 광고의 임팩트 및 도달률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와이드비전 싱크는 현재 잠실·양재 등 1~4호선 내 주요 5개 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신한중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1,300개 올리브영 광고판 확보

CJ올리브영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사업 입찰서 우선협상자 선정



올리브영 매장의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카카오모빌리티가 CJ올리브영의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진행된 CJ올리브영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및 매체 운영권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기존 사업자였던 SK브로드밴드와 KT 등이 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간 본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1,300여 개 CJ올리브영 매장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올리브영은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상업공간으로, 내부 디지털 광고매체의 효과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한 매체로 볼 수 있는 편의점TV와 달리 매장별로 사이즈·형태가 다른 다양한 매체들이 설치돼 있어 보다 다양한 미디어믹스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택시 뒷좌석 동영상 매체로 옥외광고 시장에 진입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역 플랫폼111,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확보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 서울 지하철 120개 역사 행선안내기 싹 교체

서울교통공사, 1~4호선 행선안내기 풀HD급 화질로 전면 개선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에 설치된 열차 정보 안내시스템(행선안내기)이 전면 리뉴얼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 120개 전 역사에 설치된 노후 행선안내기 개량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량 대상은 승강장과 대합실에 설치된 총 3,790면 규모의 행선안내기 전체다. 이 사업은 2008~2010년에 설치된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장애

가 잦아지고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화면 품질이다. 기존보다 밝고 선명한 FHD급 화면을 적용해 열차 도착 시각과 행선지, 운행 정보가 보다 또렷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 명소 안내 등 공익 광고 위주로 송출되던 화면 구성도 열차 운행 정보 중심으로 바꿨다.

교통약자를 고려한 개선도 이뤄졌다. 공사는 시청역 등 9개 역 19개 지점에 열차정보 안내 모니터를 추가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승강장 기둥, 천장 구조물로 인해 화면이 잘 보이지 않던 곳에 모니터를 새로 달아 휠체어 이용객이나 고령자도 열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앞으로 노후화로 장애가 늘고 있는 5~8호선 열차정보 안내시스템



개선작업이 완료된 서울 지하철 행선안내기.

에 대해서도 국·시비 예산 확보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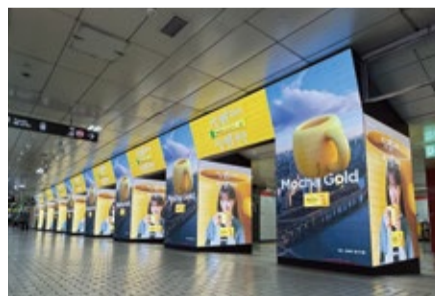
# 옥외광고의 모든것! '전홍'

1975년부터 우리는 도시의 흐름을 읽고, 지하철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세상과 연결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역동적인 도시의 맥박 위에 고객의 꿈을 실어 온 50년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우리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만족, 더 나은 우리의 꿈을 위해 내일을 밝히며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기금조성 옥외광고물

- 주요고속도로 (인천공항, 경부, 중부, 서울양양)



### 지하철 1~8호선

- 공간활용 프로모션
- 디지털옥외광고 (DOOH)
- 성수역 프로모션(New! Media)



### 지하철 1~5호선

- LED 사각기둥 (PSP)
- 사각기둥 조명광고



### 지하철 2~3호선, 수도권 전동차

- 2호선 전동차내 광고
- 3호선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 수도권 전동차내 광고

# ‘소비자 시선을 따라 회전하는 디지털 광고가 있다?’

드래프트타입, 명동에 키네틱 디지털 광고 ‘팔로잉미디어’ 론칭

4개의 스크린 모듈이 따로 또 같이 회전하며 임팩트있는 광고 구현



명동역 7번 출구 앞 보행로에 설치된 팔로잉미디어.

국내 대표 쇼핑 관광지인 서울 명동에 색다른 키네틱 디지털 광고가 등장했다.

드래프트타입은 명동역 7번 출구 앞 보행로(중구 명동82길)에 키네틱 회전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AI 디지털 광고 ‘팔로잉미디어’의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팔로잉 미디어는 건물 3층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 8.6m의 지주형 디지털 광

고매체다. 4.4m 높이의 지주 위로 3200×4200mm 규격의 양면 LED 디스플레이가 올려져 있는 형태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200×1000mm의 디스플레이 구조물 4개가 수직으로 연결된 구조라는 점이다. 4개의 미디어 구조물의 8개 화면이 함께, 또 따로 회전하면서 광고를 송출한다. 이동하는 보행자들의 속도에 맞춰 화면이 자연스럽게 회전하기 때문에 광고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4개 미디어 구조물 전체에 하나의 영상을 송출해 임팩트있는 광고를 구현할 수 있고, 4개 중 1개 또는 2개에만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광고주는 기획과 예산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해 집행할 수 있다.

드래프트타입 관계자는 “팔로잉미디어는 이름처럼 명동을 오가는 국내외 관광객과 쇼핑객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포착해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도 강렬한 브랜드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시스템을 활용해 명동 상권 이용자의 특성 데이터를 분석, 시간대와 유동인구, 타깃소비자 프로필 등에 기반한 데이터 중심의 광고 기획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실제 소비자층에게 유효성이 높은 광고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적의 타이밍을 선별할 수 있다. 자체 AI 디자인 팀을 통해 필요시 광고 영상 제작까

지 일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회사측은 명동에 밀집해 있는 패션·뷰티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없었던 트렌디한 광고 매체인 만큼 패션 브랜드의 광고에 효과적이며, 다양한 바이럴 전략을 통한 2차 마케팅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도.

관계자는 “팔로잉미디어는 개성있는 매체의 형태와 키네틱 시스템 등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명동의 주요 광고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4개가 합쳐지고, 또 따로 회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화면이 움직인다.

1666-3571  
www.iclickart.co.kr

✉ : ICLICKART

트렌디한 이미지  
배달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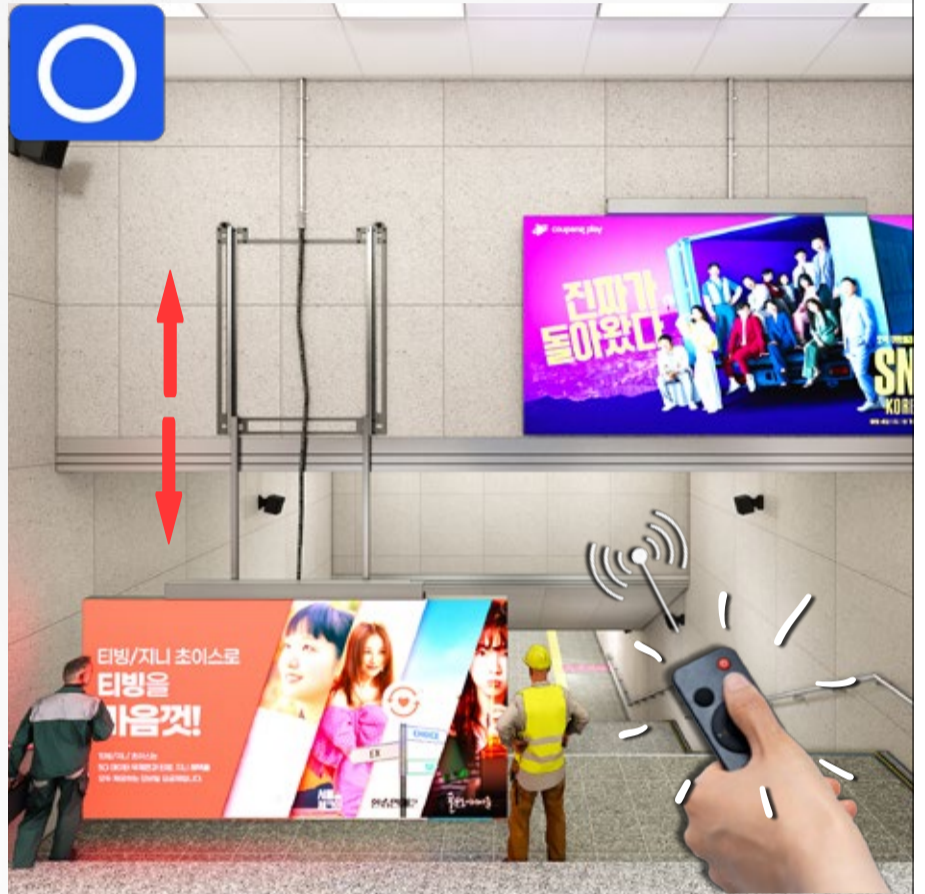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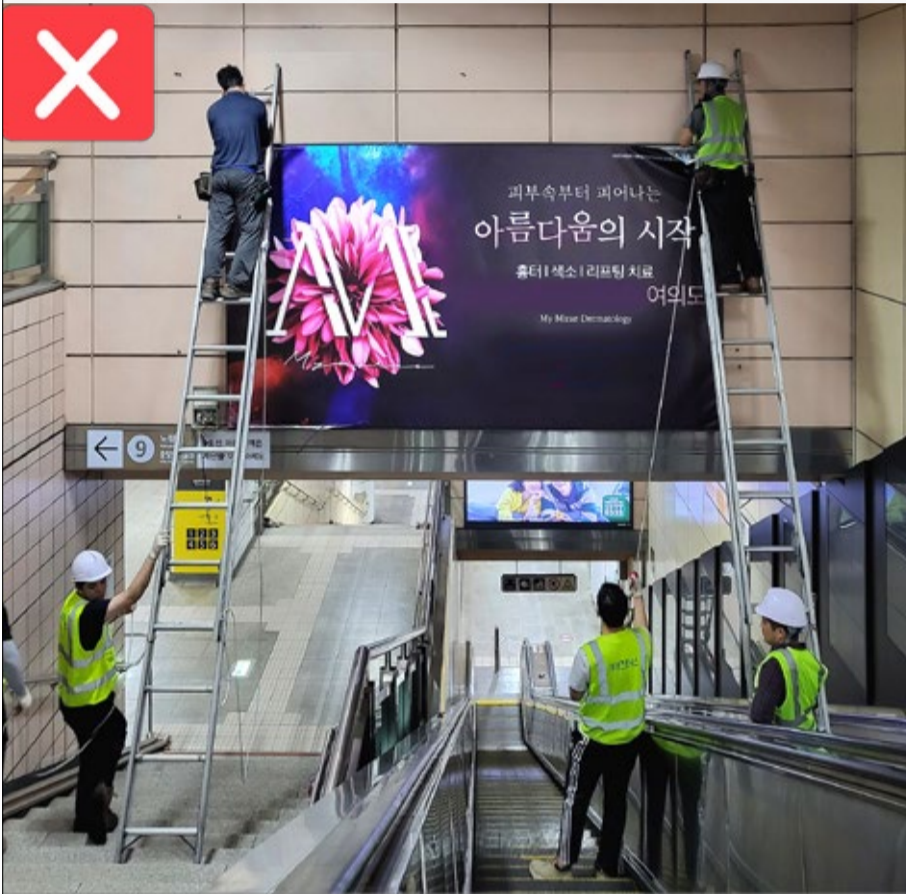
저작권 확보된 콘텐츠는 아이클릭아트 에서 무제한 다운로드



# 수직 이동형 광고판 승강장치

"이젠 사다리도, 비계도 필요 없습니다!" 리모컨 하나면 OK!

광고 출력물 교체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 국내 최초 특허 보유!

### 수직 이동형 광고판 승강장치만의 특징점!

- 사고예방 ----- 산업재해 고위험군인 사다리 추락사고 방지
- 비용절감 ----- 전문장비 또는 인력이 필요치 않아 비용 절감
- 시간단축 ----- 야간에만 가능했던 작업이 주간에도 가능
- 장비 간소화 -- 리모컨 하나로 별도의 고소장비 없이 게, 폐첩 가능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해방

- ✓ 반영구적 맞춤 설계  
각 현장별 실사와 맞춤 설계로 최초 설치 후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전도 및 추락 방지 설계  
높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광고판이 전도 및 추락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 유지보수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손쉽게 유지보수 및 A/S가 가능합니다.
- ✓ 비상시 전원차단 기능 장착  
비상시에 동작중인 광고판을 전원차단 기능으로 즉시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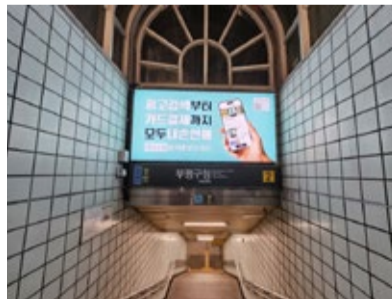
이런 곳에 수직 이동형 광고판 승강장치를 설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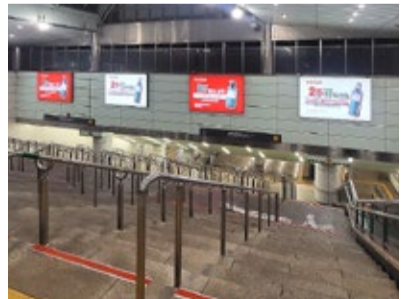
공항 및 버스터미널 광장



기차역, 지하철역 대합실



출입구 상단 캐노피



계단 캐노피

업종별 옥외광고 크리에이티브 - 초콜릿 광고

# 당분을 멀리 하는 시대, 초콜릿을 홍보하려면?

## 초콜릿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하는 문화 마케팅에 주력

작년에 치러진 '2025 칸 광고제'와 '2025 부산 광고제'의 옥외광고 부문 그랑프리는 요즘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SI기업 광고가 아니고 언제나 주목받는 공익광고도 아닌, 한 초콜릿 브랜드의 광고들이었다.

초콜릿은 전세계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간식이다. 특히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1분기에 집중적인 광고가 이뤄

지는 상품이다.

한때 초콜릿 광고의 카피는 무조건 유행어가 됐고 광고 모델은 스타로 직행할 만큼 관련 브랜드 광고의 주목도와 파급력이 높았다. 하지만 웰빙 트렌드의 확산과 함께 당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면서 초콜릿에 대한 소구력이 줄었다. 그에 따라 지금도 초콜릿 광고는 예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초콜릿 브랜드들의

광고 방식도 달라지는 추세다.

예전의 초콜릿 광고는 '달콤하다', '부드럽다' 등의 메시지를 담은 여성 취향의 광고가 주를 이뤘다. 또 초콜릿의 맛이 얼마나 강렬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를 과장된 이미지를 통해 유틸리티 있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 브랜드들은 맛보다 초콜릿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해서 다시 사랑받는 디저트가 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초콜릿=달다'가 아닌 '초콜릿=휴식'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등의 방식이다. 신한중 기자



**킷캣**

작년 칸 광고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초코바 브랜드 킷캣(KitKat)의 'Phone Break' 캠페인. 회사의 오랜 슬로건 'Have a break, have a KitKat'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광고로 버스를 기다리거나, 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장면을 게시했다. 주목할 부분은 광고 속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대신 킷캣의 초코바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 스마트폰을 그만 내려놓고 진짜 휴식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시지에 맞춰 디지털 광고판을 일절 배제하고 아날로그 매체만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킷캣**

킷캣이 필리핀 전개한 '킷캣 휴식 바(KitKat Break Bars)' 캠페인. 필리핀 상점들은 휴게시간 동안 문 손잡이에 우산 등을 끼워서 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킷캣은 우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초콜릿바 형태 구조물을 상점들에 무료로 배포해 '휴식이 필요할 때는 킷캣'이라는 슬로건을 상기시켰다.



**메이지**

일본의 초콜릿 브랜드 메이지(Meiji)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일본 오사카 철길에 가로 166m, 세로 28m 규모의 초대형 초콜릿 광고판을 설치했다. JR 도카이도선 열차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플라스틱 블록 42개를 연결해 실제 판매되는 초콜릿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톤톤스**

영국의 톤톤스(Tornton's)는 진짜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초대형 광고판을 런던 거리에 설치했다. 400kg에 달하는 128개의 초콜릿 패넬로 제작된 이 광고판은 거리를 지나는 어린이들이 실제로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운영됐다. 다만 업체 예상과 달리 거리의 아이들이 이 광고판을 다 뜯어 먹는 데는 불과 3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페레로로쉐**

선물용 고급 초콜릿으로 유명한 페레로로쉐(Ferrero Rocher)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캐나다 토론토의 버스정류장을 활용해 진행한 광고. 광고면은 물론 정류장 전체를 자사 제품의 화려한 금빛 선물 패키지 형태로 꾸며, 초콜릿 선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했다.



**허시파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허시파크(HUSH PARK).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회사 허시(HUSH)가 운영하는 테마파크로 내부는 초콜릿 체험관을 비롯해 놀이동산, 소아병원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돼 있다. 놀이동산으로서 디즈니랜드급은 아니지만, 역사로 치면 디즈니랜드보다 더 오래된 공간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곳의 모든 사인과 디스플레이는 허시의 제품 패키지 형태로 제작돼 있다는 점이다. 테마파크 운영을 통해 브랜드 마케팅과 제품 광고가 동시에 이뤄지는 블록버스터급 옥외광고다.

대형채널



아크릴면발광



티타늄채널(골드스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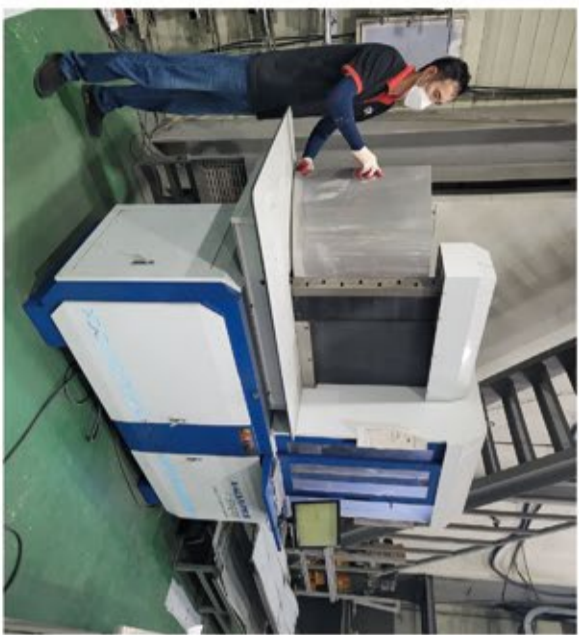


# 오케이엔드럭

[www.okinc.co.kr](http://www.okinc.co.kr)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88(오정동, 739-6)  
Tel. 032)674-0000 Fax. 032)677-1110

대형채널장비(600mm벤딩가능)



본사전경



전 · 후광채널



에폭시, 일체형 채널



# 코스테크의 더 젊고 강력해진 새 이름은 '코스테크에스지'

4개 회사로 기업 분리... 계열사별 전문성 극대화 도모

사인·그래픽 솔루션 판매 및 관리는 코스테크에스지로 일원화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스위스큐프린트 장비의 시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코스테크가 경영구조 혁신과 젊어진 리더십을 통해 새 도약에 나선다. 코스테크는 지난 2월 10일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화된 기업 구조와 새로운 경영 전략 '비전 2026'을 소개했다. 코스테크는 최근 기존 단일법인을 코스테크홀딩스, 코스테크에스지, 코스테크, 코스테크인크 4개 법인으로 분리

했다. 사인·그래픽 관련 모든 사업 부문은 코스테크에스지가 담당하게 되며 코스테크는 검정·계측기 사업을, 코스테크홀딩스와 코스테크인크는 관리 및 R&D 전문기업으로 운영된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코스테크에스지다. 민준일 대표가 수장을 맡은 이 회사는 기존 무토·그래프텍과 새롭게 전개하는 스위스큐프린트

의 장비 유통은 물론, 휴프라이프도 산하 브랜드로 편입시켜 판매 구조를 일원화했다. 소재 브랜드인 오렌지박스 역시 이 회사가 담당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급 장비부터 가성비 위주의 장비까지 토털 라인업을 구축한 만큼 전방위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스테크홀딩스 민경원 대표는 "이

번 기업 분리는 분야별 책임 경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코스테크에스지는 기존 코스테크보다 더 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인 만큼, 고객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 미니 인터뷰 - 코스테크에스지 민준일 대표

### “판매는 책임의 시작... 고객과 상생하는 기업 될것”

페잉크 무상 수거 서비스 전개... 수거부터 행정 증빙까지 일괄 지원



민준일 코스테크에스지 대표.

코스테크에스지의 민준일 대표는 30대의 젊은 나이이지만 코스테크 사원으로 입사해 바닥부터 탄탄하게 실무를 다졌다. 최근에는 스위스의 글로벌 프린터 기업 스위스큐프린트와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성사시켜 기업 성장을 위한 새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가 회사의 수장으로서 첫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은 '페잉크 무상 수거 서비스'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서비스의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 들어봤다.

-페잉크 무상 수거 서비스란.

▲공식 명칭은 '디지털 프린팅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이다. 코스테크에스지의 잉크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페잉크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본사 차원에서 직접 폐기물 전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고객사의 페잉크 수거와 폐기, 관련 행정 처리까지 일괄 진행하는 구조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페잉크 처리는 사실 업계에 내포돼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인쇄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페잉크는 환경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래서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 업체를 통해 적절한 절차로 처리해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처리 과정과 행정 증빙이 까다롭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업체에서는 불편이 매우

크다. 이에 공급사 차원에서 페잉크 수거 및 증빙까지 책임져 고객사들의 환경 리스크를 해소하고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코스테크에스지로서는 인력과 비용 등 부담이 클 텐데.

▲초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는 날로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페잉크 처리 문제도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들, 프린터와 잉크를 구매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성능과 가격을 넘어 이런 환경 리스크 해소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우선은 전북과 전남 2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지역 내 코스테크

에스지 대리점인 테크윈과 우림테크가 페잉크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 거점'이 되는 형태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때도 각 지역 대리점이 '환경 거점'으로 운영된다. 대리점들은 '페잉크 무상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적극 지원하고 영업의 지렛대로 삼아 전략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임 대표로서 포부를 밝힌다면.

▲'판매는 책임의 시작'이라는 게 코스테크에스지의 기업 철학이자 경영 방침이다. '페잉크 무상 수거 서비스'는 시장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기도 하지만 잉크 생산·공급자로서 고객들의 비즈니스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비전을 알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과 최선의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

**관공서 선호도 1위 제품**

**여성기업-우선구매**

1988년 - 각목과 노끈이 필요 없는 탱탱 걸이대 특허획득 (세계 최초)  
 2007년 - 친환경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동게시대 특허획득(세계최초)  
 2011년 - 전자동/반자동 겸용으로 작동하는 겸용게시대 출시(세계최초)

# 디자인형 현수막게시대

게시대 관리의 편리함, 도시미관의 향상, 지역 컨셉에 맞게 디자인하여 제작하여 드립니다~!



**전반자동겸용** 풍속감지자동승하강, 버튼 핸들겸용  
**반자동게시대** 핸들형, 고장 잘 없어요  
**저단형게시대** 찌그러지지 않아요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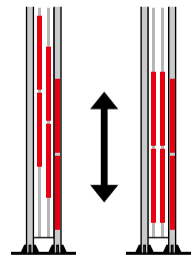
- 현수막 하강시 그대로 내려옴
- 공간이 협소하여도 설치가능
- 기둥내에서 움직이므로 보행자 위험없음
- 현수막이 그대로 내려와 탈부착 용이

**편리성**

- 핸들 돌릴때의 부드러움 (유치원생도 돌릴 수 있습니다)
- 손쉬운 현수막 탈부착
- 조립해체가 간단하여 이전설치가 쉬움

**다양성**

- 디자인 게시대 제작
- 나무무늬목
- 열처리칼라도장
- 스텐판 등



- 생산 제품 종류
  - 각종 현수막 게시대 (주문제작가능)
  - 게시판, 안내판 등

- 남신테크 보유 지적재산권
  - 특허증 16건
  - 의장 및 상표 등록증 4건

※ 위 제품들은 특허등록된 제품으로 무단 제작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 하이퀄리티 출력 위한 합리적 선택... 이제 한울에 맡겨!

## 8컬러 탑재한 하이엔드 에코솔벤트 프린터 신제품 2종 전개



한울이 새롭게 선보인 8컬러 에코솔벤트 프린터.



출력이 이뤄지는 모습. 원색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표현한다.

한울이 사진 인화 수준의 하이 퀄리티 출력이 가능한 에코솔벤트 프린터 신규 라인업을 선보였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신장비 도입 움직임이 정체돼 있는 지금, 합리적 가격에 압도적 퀄리티를 구현하는 신장비로 새 흐름을 이끌어 간다는 전략이다.

신제품은 뛰어난 컬러 재현력을 비롯해 신뢰성과 편의성, 가격에 이르기까지 요즘 소비자들이 솔벤트 프린터에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한울의 설명이다.

### ▲포토 프린터 수준의 압도적 컬러 재현력

1800폭과 3200폭 2종으로 출시된 신제품은 엡손 헤드 탑재된 제품으로 1헤드와 2헤드, 4헤드 타입 중 맞춤형 사양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탑재된

헤드는 최소 잉크분사 크기 3.8pl에 노즐 3,200개로 구성됐다. 출력 품질과 속도, 내구성 등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입증받은 제품이다.

신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새롭게 도입된 컬러 사이언스다. C·M·Y·K 4컬러에 레드(R), 그린(Gr), 오렌지(Or), 라이트 블랙(Lk)이 추가된 8컬러가 탑재됐다. 레드·오렌지·그린의 컬러 잉크를 통해 정확한 원색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기업의 CI·BI를 아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픽 압부의 계조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라이트블랙 잉크도 추가돼 더욱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잉크 구성뿐 아니라 컬러의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탈리아 바르비에르(Barbieri) 측색장비 기반으로 개발된 ICC 프로파일을 기본 제공한다. 립소프트웨어도 최신의 오닉스립(ONYX RIP)을 기본 탑재함으로써 정확한 색 관리와 쉽고 편리한 워크플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탁월한 컬러 재현력을 구현하는 장비인 만큼 고품질 옥외광고,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장 그래픽, 전시회·콘서트 등 하이엔드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장비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 ▲미디어 센서 및 내장 건조기능으로 편의성 탁월

하드웨어의 완성도도 우수하다. 아주

정교한 프린터 헤드 배열을 통해 출력 품질을 높였다. 벤딩 현상을 유발하는 잔진동 억제에 최적화된 부품을 적용해 신뢰성을 더욱 개선했다. 정교하고 부드럽게 헤드 캐리지가 작동하도록 설계돼 출력 과정에서의 안정성도 우수하다.

미디어 측정센서와 빌트인 타입 건조 시스템 등을 적용해 편의성도 높였다. 미디어 측정센서는 소재를 프린터에 걸고 출력을 진행하기 전에 원단 폭을 프린터가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장치다. 이 기능이 없으면 새로운 원단을 장착할 때마다 일일이 폭을 재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실제로 저가형 프린터를 사용할 때 현장 작업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미디어 측정센서의 부재다.

고성능의 빌트인 건조 시스템도 주요한 기능이다. 출력과 건조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빠르게 후가공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 단납기 작업이 많은 업체에 유용하다.

한울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에코솔벤트 프린터는 시연을 지켜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올 만큼 뛰어난 색감을 구현한다”며 “고성능 하드웨어와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로 안정성과 편의성도 탁월하다”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문의 : 010-2513-0594

# 종로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공간 특성에 따라 그래피티·타이포그래피·캘리그래피형으로 제안



종로형 가설울타리 타이포그래피형.

서울 종로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도시 경관과 보행 안전을 함께 담은 공공디자인 요소로 개선하는 ‘종로형 가

설울타리 디자인’ 적용에 나선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기능 중심이었던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탈피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갤러리형 가설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광화문, 대학로, 북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다수 포함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사장 가설울타리도 공공디자인 요소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종로형 가설울타리 개념을 도입, 정보 제공·안전 확보·공공디자인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3가지 디자인 유형을 마련한 점이다. 대학로와 상업 밀집지에는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래피티형 가설울타리’를, 광화문·종묘·경복궁 등 역사·문화 축에는 고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

타이포그래피형 가설울타리’, 북촌·서촌·인사동 등 한옥 밀집지에는 전통미를 살린 ‘한옥 캘리그래피형 가설울타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종로형 가설울타리에 공통 기준을 적용했다. 상부에는 돌출부를 가리는 마감캡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고무 앵글발(패킹)을 적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은 도시의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얼굴”이라며 “걷는 것만으로도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 실사출력 장비 공급사들의 리더십 변화 주목

코스테크에스지·한국롤랜드디지 새 수장 맞이하고 딜리도 기업 승계 진행



왼쪽부터 코스테크, 한국롤랜드디지, 딜리의 로고.



내 주요 실사출력 장비 공급사들이 리더십을 교체하며 새로운 변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코스테크는 최근 사인그래픽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코스테크에스지를 신규 설립했다. 코스테크에스지의 수장으로 민준일 대표가 선임됐다. 민 대

표는 코스테크홀딩스 민경원 대표의 장남이다. 코스테크 사원으로 입사해 업계의 실무를 바닥부터 다져온데다, 스위스큐프린트와의 협력 등 코스테크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만큼 회사 내부에서의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롤랜드디지도 최근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새로운 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 설립된 한국롤랜드디지는 설립 이후 최근까지 서치헌 대표 체제가 공고히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치헌 대표가 일본 본사로 자리를 옮기고 김태민 신임 대표 체제로 13년만

에 리더십의 변화가 이뤄졌다. 국내 유일의 UV프린터 제조사 딜리도 최근 기업 승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딜리는 최근 공시를 통해 최근수 대표이사의 주식 지분율이 증여로 인해 감소했다는 점을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최 대표의 두 자녀인 최윤희와 최동희가 각각 440만2,500주를 증여받았다. 이로써 최 대표의 지분율은 35.5%에서 5.49%로 하락했고 두 자녀가 공동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특히 차녀인 최동희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지분 증여 차원을 넘어 리더십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신한중 기자

# ‘폐현수막 가져다 쓰세요’... 가평의 이색 재활용 정책 눈길

원형 그대로 시민에게 무료 배부... 연 4.5t 재활용

가평군의 기발한 폐수막 재활용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가평군은 주민들이 폐현수막을 가져가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폐현수막 자율형 자원순환 공유사업(다시 씀)’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매년 4.5t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앞치마, 가방 제작 등에 활용해 왔으나 개당 제작비가 1,000~2,000원 수준으로 높은데다 수요도 제한적이어서 의

미있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폐현수막을 농가에서 잡초 방지용으로 사용하거나 가정 및 건설현장에서 자재 덮개, 이사·청소시 바닥 보호용 보양재 등으로 사용하는 점에 착안해 주민들이 폐현수막을 원형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용 폐현수막은 오염이 심한 물질을 제외하고 상태가 양호한 것만 선별해 제공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목과 끈은 제거된다. 폐현수막이

필요한 주민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용 보관함에서 1인당 하루 10장 이내로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된다. 군은 주민들이 재활용함으로써 폐현수막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실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폐현수막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만큼 체감도가 높은 자원순환 정책”이라며 “주



가평군의 자율형 폐현수막 비치대.

민들의 활용 아이디어를 살펴서 더 다양한 재활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공모

3월 6일까지 신청 접수... 선정시 공공시장 우선 사용 등 혜택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 제품들.

경기도가 도심의 가로등이나 벤치, 볼라드 등 우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인증하는 ‘2026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의 참가 기업을 공모한다.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 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 등 관련 공공시설

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을 마친 것이어야 한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음과 동시에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으로 게재되며,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시 우선 사용 권장을 받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서도 홍보 및 설치 권장 등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라면 참가할 수 있다. 또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 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3월 6일까지 ‘디자인경기(design.gg.go.kr)’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얇은 광고판 속에 무한한 입체 공간 구현

## 삼성전자, 무안경 3D 방식 '스페이셜 사이니지' 출시



삼성전자가 공개한 '스페이셜 사이니지'.

삼성전자가 3D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인 스페이셜 사이니지(모델명 SMHX)'를 출시했다.

스페이셜 사이니지는 별도의 3D 안경이 없이도 깊이감있는 입체 효과를 구현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인 '3D 플레이트(3D Plate)'를 활용해 아주 독특한 공간감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상의 중심 소재 주변에 착시를 일으키는 명암 구조를 표현함으로써 사람이나 제품 뒤편으로 깊은 공간이 있는 것같은 모습을 연출한다. 이런 기법을 통해 인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디스플레이 안에 마치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같은 착각이 들게 하며, 모델의 정면·측면·후면을 아우르는 360도 회전 영상을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다. 평면 이미지를 왜곡해 극적인 입체감을 살리는 착시 효과다.

2D 콘텐츠의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깊이감있는 3D 효과를 연출하기 때문에 리테일·전시·엔터테인먼트 등 다양

한 상업 환경에서 주목도가 높은 미디어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85인치 1종으로 4K UHD(2160×3840) 해상도와 9대16 화면비가 적용됐다. 고정밀 컬러 사이언스를 통해 정확한 색을 표현하며, 지나치게 밝거나 복합 조명이 설치된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게 눈부심 방지 패널도 탑재됐다. 제품 두께는 52mm의 초박형으로 제작됐으며 무

게는 49kg이다. 기존의 3D 디스플레이에 비해 얇고 가볍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전용의 콘텐츠 제작도 어렵지 않다. 삼성전자의 사이니지 콘텐츠 운영 솔루션 '삼성 VXT'와 연동되며 추후 AI 기반 콘텐츠 제작 앱 'AI 스튜디오'도 지원한다. AI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별도의 전문 제작기술 없이 제품이나 모델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그림자 생성 등 3D 효과와 깊이



13인치 컬러 이페이퍼.

감을 부여해 스페이셜 사이니지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변환할 수 있다. 해당 AI 스튜디오 앱은 2026년 상반기중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스페이셜 사이니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상업 디스플레이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여주는 만큼 광고·홍보·고객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페이셜 사이니지는 얇은 화면 안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다, 실제 인물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같은 생생한 연출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홍보 효과를 원하는 다양한 상업공간을 대상으로 제품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스페이셜 사이니지와 함께 POP용 13인치 컬러 이페이퍼 신제품도 출시했다. 컬러 이페이퍼는 종이처럼 얇고 가벼운 디지털 사이니지로, E잉크 기술을 적용해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현저히 낮은 전력이 쓰이는 초저전력 디스플레이다.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때는 전력이 전혀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 연결없이 내장 배터리만으로 장기간 사용 가능하다.

### ▲13인치 컬러 이페이퍼 신제품도 공개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첫 출시한 32인치 모델에 이어 이번에는 실내용 13인치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신제품은 4대3 화면비를 적용했으며,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으로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는 8.6mm, 배터리 포함한 무게는 0.9kg에 불과하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며 충전 타입의 착탈식 배터리와 거치용 스탠드, 천장 걸이용 브래킷을 제공해 벽이나 천장 레일 와이어에 걸 수 있다. 테이블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해 다양한 상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이런 옥외광고가 가능하다고?

## 쓰리디팩토리, 사우디 알하다산 활용한 마운틴 미디어파사드 추진

세계적인 자연 유산을 활용한 옥외 광고가 추진돼 눈길을 끈다.

쓰리디팩토리코리아의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 루야파이다가 알하다(AI-Hada)산 등산로를 활용한 대규모 미디어파사드 광고 시스템을 추진한다. 회사는 기네스 월드 레코드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운틴 미디어 파사드'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이 광고는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Taif) 지역 알하다산 정상 해발 1,738m

지점의 등산로 등을 활용한다. 이 지역은 연간 수백만명의 무슬림 순례객이 찾는 메카로 향하는 주요 관문으로, 지리적·상징적 의미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현재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미디어파사드 및 레이저 조명 시스템 등의 기술을 적용해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는 100개 이상의 디지털 사이니지도 함께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루야파이다는 이번 미디어파사드를 단순한 상업광고 시설이 아닌 디지털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순례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와 기상 안내 등 공공 정보를 제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성지로 향하는 길목의 질서와 안전을 지원하는 공익적 기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매체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들어가게 되며, 맥도날드 등 글로벌 브랜드와 일부 광고 계약도



알하다산 미디어파사드 홍보 포스터.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한중 기자

EVENT

# 보상/할인 이벤트

행사기간 : 2026년 03월 31일까지 납품분에 한함

**New Head Q UANTUM**

- 신형 8채널 퀴텀 헤드
- 최고출력속도 145m<sup>2</sup>/h (300x600 1Pass)
- MIMAKI 정품 트윈롤
- MWDT 기술로 압도적인 품질 구현



## Pigment

**NEW** Aqueous Pigment Inkjet Printer  
**JV330K-190**

소비자가 2,280만원 → **최대보상 500만원**

최대 보상이 프린터 TS34, JV300K(경상역동기기에 한함)

## Solvent



**NEW** Solvent Inkjet Printer  
**JV200-160**

소비자가 1,880만원 → **최대할인가 1,680만원**

330엔진 탑재로 최소 3pl 잉크 방울 제어 / 실제 출력속도 22.0m<sup>2</sup>/h (600x1200 4pass)  
믿을 수 있는 압도적인 생산성 / 고정밀, 고밀도 인쇄로 아름다운 품질 표현



**NEW** Solvent Inkjet Printer  
**JV330-160**

소비자가 2,480만원 → **최대할인가 1,980만원**

신형 8채널 퀴텀 헤드 / GREENGUARD GOLD 친환경잉크(ISO14001 인증)  
미디어 체인저로 롤 3개 동시장착 / MWDT 기술로 압도적인 품질 구현

## UV-LED



UV LED Inkjet Print&cut  
**UCJV300-160**

소비자가 2,980만원 → **최대할인가 2,080만원**

UV-LED 8색 잉크(C,M,Y,K,Lc,Lm+W+CL) / 1-5 레이어 프린트 가능 지원  
Print&Cut 프린트 후 즉시 커팅 가능 / 친환경 잉크, 그린가드 골드 인증 획득



**NEW** UV LED Inkjet Print&cut  
**UCJV330-160**

소비자가 3,480만원 → **최대할인가 2,580만원**

신형 8채널 퀴텀 헤드 / Print&Cut 프린트 후 즉시 커팅 가능  
2.50 입체 출력 가능(파인아트, 텍스처 표현) / 신개발 잉크 토출 기술

## Cutting

### CG-60AR



동급 최대 커팅압력 550g  
두꺼운 판지 커팅을 위한 새로운 옵션  
라벨 / 스티커 / 윈도우 광고 / 패키지  
케이코퍼 / 여행로퍼 / 패이퍼크라프트

소비자가 220만원 → **최대할인가 180만원**

### CG-130AR



소비자가 390만원 → **최대할인가 350만원**

### CG-130FXII Plus



ID CUT  
최대 커팅압력 500g  
최대소재폭 1,580mm  
최대커팅폭 1,300mm

소비자가 590만원 → **최대할인가 540만원**

보상 장비 별도 문의

2026년 03월 31일부로 이벤트 종료함 / 보상 프린터 기종 및 상태에 따라 보상이 상이함 / 자세한 상담은 담당 영업부에 확인 요망  
소비자가는 2026년 02월 기준 가격임 / 상기 금액은 VAT 별도가임 / 본 이벤트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음

# ‘2026 코리아 빌드위크’ 속 옥외광고 기술들

미디어로 진화하는 공간디자인 흐름에 주목



대규모 부스를 꾸며 고객밀착형 홍보에 나선 LX하우스.



로토라이프의 토로 미장재로 벽면 로고 제작 시연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LED라이팅 타공보드를 홍보한 씨에스코리아.

국내 최대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2026 코리아 빌드위크’가 2월 4~7일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 전시는 사인·디스플레이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건축 및 인테리어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옥외광고 업계의 참여와 관심도 높은 편이다.

### ▲간판 역할하는 색다른 건축 마감재들에 눈길

코리아 빌드위크는 전시의 성격상 마감재와 외장재 업체들의 참여가 많다. 이번 전시에서도 그랬는데, 특히 독특한 디자인의 마감재를 일종의 사인·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다수 등장했다.

LX하우스는 부스에 대규모 상담 센터를 구축하고 고객 밀착형 마케팅에 나서는 한편, 자사가 전개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패널렉스’를 홍보했다. 패널렉스는 UV프린팅으로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입힐 수 있는 소재로 리테일 매장의 실내외 마감재부터 간판 소재까지 다양한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로토라이프는 벽지나 페인트를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 흙 미장재 ‘토로’를 출품했다. 백토·황토·적토 등 천연 원료를 조합해 만든 마감재다. 특히 작업 방식에 따라 조소 형태로 상호·고·슬로건 등을 구현해 상업 공간의 사

이니지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 고급 상업공간에서의 활용이 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간판부터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씨에스코리아의 LED라이팅 타공보드도 높은 활용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내부에 LED를 내장한 보드로 표면의 타공 작업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 ▲투명 LED스크린의 다양한 응용 기술

이번 전시에는 예년보다 LED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의 참여가 많았다. 최근 건축 및 인테리어 시장에서 LED

미디어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주봉정보시스템은 글로벌 LED 디스플레이 선두 기업인 앵센(Absen)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앵센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옥외광고협회(WOO) APAC 포럼’에 글로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기업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XLCOB, KLCOB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투명 디스플레이, 원통형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상업공간용 제품을 소개했다.

홀로그램 등 특수 디스플레이 제품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아바엔터테인먼트는 MUXWAVE사의 투명 매쉬 LED스크린을 선보였다. 피치 간격 3.91mm로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면서도 아주 얇은 두께로 구현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사인·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변화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단순 사인 구조물 제작에서 벗어나 디지털 사인지와 LED 전광판을 아우르며 공간 기획 및 디자인 업체로서의 새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스를 꾸렸다.

사인 업체로 시작한 에이치디지코리아는 기존의 사업 분야에 디지털 사인지와 스마트 전광판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 형태를 소개했다. 특히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사인 산업을 미디어와 콘텐츠 기반이 결합한 모델로 시장 저변의 확대를 모색했다.

공간 디자인업체 뷰미디어는 투명 LED필름을 활용한 ‘투명 뷰 LED스크린’을 출품했다. 기존 건물 유리에 부착하는 ‘마운틴온 타입’, 이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로어스탠딩 타입’, 천장걸이 광고물로 쓸 수 있는 ‘행잉업 타입’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신한중 기자



글로벌 기업 앵센의 LED사인지를 선보인 주봉정보시스템.



뷰미디어가 출품한 ‘투명 뷰 LED스크린’.



사인 기획 및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한 에이치디지코리아.



홀로그램 광고 ‘홀로매직’을 선보인 아바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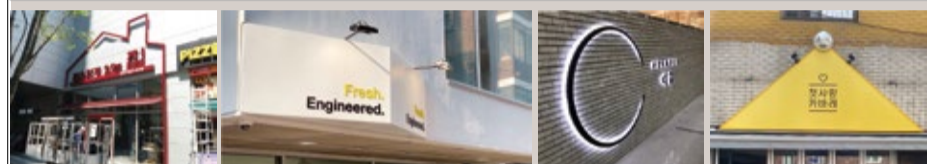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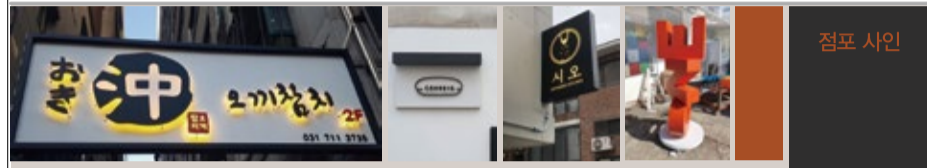
### 다양한 사인 제작/시공 노하우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준비된 유원광고기업이 함께합니다.”



### 맞춤형 공공사인 제작/시공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준비된 유원광고기업이 함께합니다.”



벌브채널 / LED채널간판 / 경관조명 / 각종 철 구조물 / 레이저 가공 / CNC 조각 제품 / 옥외용 시계탑 / 실사출력물 / 현수막



벌브채널 / LED채널간판 / 경관조명 / 각종 철 구조물 / 레이저 가공 / CNC 조각 제품 / 옥외용 시계탑 / 실사출력물 / 현수막



QR코드

간단한 현수막 설치와  
철거 QR코드로 확인하세요



현수막 게시대의 혁신,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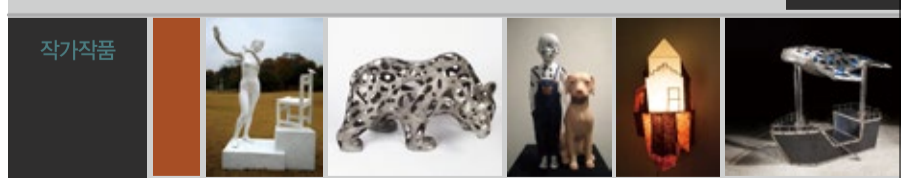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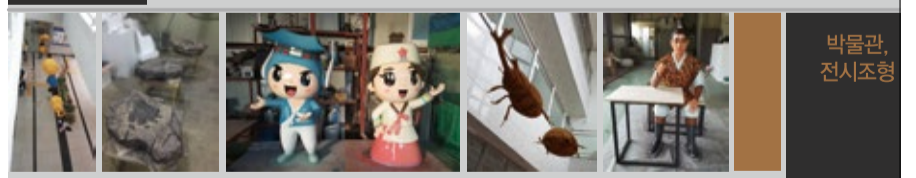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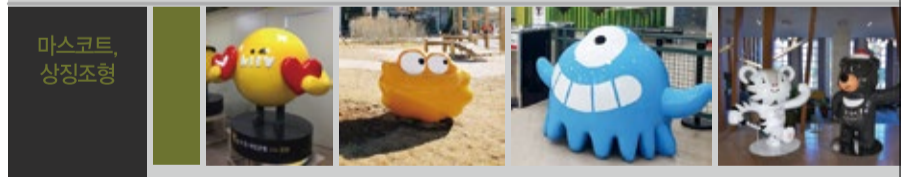
###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준비된 유원광고기업이 함께합니다.”



### 『맞춤형 조형물 제작/시공』

“높은 작품성과 축적된 기술로 가치를 높이는 조형 수연아트가 함께합니다.”



(주)유원광고기업  
YU WON Co., Ltd.

홈페이지 · 이메일  
http://www.유원.kr  
ssm8425@naver.com

연락처

TEL. 02-2692-8425 FAX. 02-2693-9466  
H.P 010-9852-84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5 (주)유원광고기업

# 옥외광고 업계, 차세대 발전 'BIPV' 시장 정조준

BIPV에 디지털프린팅·투명LED 등 디자인 기술 적용하기 위해 분주



디지털프린팅이 적용된 BIPV가 설치된 건물들의 모습.



옥외광고물 제작업계가 새 시장으로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가 주목받고 있다.

BIPV는 건축 외장재·창호·윈도 등을 태양광 발전 모듈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별도의 설비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부족한 도심형 발전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는 효율과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물 옥상·벽면에 별도의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는 BAPV(Building Applied Photovoltaics) 방식에 비해 시장 규모가 현저히 작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 자체가 공간의 흥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다, 효율도 개선되면서 BIPV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BIPV 시장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 2030년까지 전체 신규 태양광 설치량의 약 13%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장 흐름에 따라 기존 옥외광고 관련 업체들도 BIPV 시장을 타깃으로 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BIPV는 도심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까닭에 공간 디자인 사업에 최적화된 옥외광고 업체들에게 유리한 점도 많다.

대표적으로 LX하우시스를 꼽을 수 있다. 이 회사는 한화큐셀과 협력해 건물의 루버(공기배출구·차양막)를 태양광 모듈로 활용하는 BIPV 제품 '솔라시스 루버'를 개발,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윈도 필름을 BIPV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지털프린터 공급사들은 BIPV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프린터 영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BIPV 제조사들은 모듈 표면에 다양한 패턴과 이미지를 적용하는 그래픽 BIPV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스크린 인쇄와 증착코팅 등 다양한 기술이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프린팅 적용도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디지털프린팅 BIPV가 나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BIPV의 경우 컬러와 패턴 등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BIPV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프린터 공급사들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시장이 형성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스테크에스지 관계자는 "일부 BIPV 제조사에 우리가 공급하는 스위스큐프린트의 고성능 UV프린터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성이 매우 큰 분야인 만큼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명 LED디스플레이 업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표면에 투명 LED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발전과 동시에 영상을 표출할 수 있는 미디어 BIPV 시장이 타깃이다. 최근 캡티비전과 피투에스지글로벌 등의 업체는 영상 송출이 가능한 미디어 BIPV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관련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

캡티비전의 미디어 BIPV는 낮에는 태양광 발전 역할을 하며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UV 프린팅을 활용해 태양광 집광판 자체에 다양한 색상 및 패턴을 구현해 디자인 외장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풀컬러 LED스크린으로 활용 가능하다.

피투에스지글로벌은 자사의 투명 LED전광유리 뉴미디어글라스를 적용한 미디어 BIPV 시스템을 전 개하고 있다. 태양광 집광판 전면에 투명한 뉴미디어 글라스를 덮어 영상 스크린으로 활용하면서 태양광 발전도 가능하게 한 형태다.

피투에스지글로벌 관계자는 "BIPV는 주요한 차세대 전력 생산원으로 기대받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높은 것이 단점"이라며 "미디어 BIPV는 광고영상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따라서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을 통한 경제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중 기자



투명 LED를 활용한 미디어 BIPV 사례.



## 포토뉴스



### 현장 작업도 이젠 더 멋지고 편리하게

#### 공구 브랜드들 자체 워크웨어 브랜드 론칭

디월트·밀워키·맥스 등 글로벌 공구 기업들이 일제히 '2026 코리아 빌드위크' 전시장을 찾아 최신의 공구들을 소개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기업들이 저마다 작업 의류 브랜드들을 론칭, 홍보에 나섰다.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적용해 작업자들의 편의성은 물론 멋까지 챙

길 수 있게 했다.

현장 작업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이젠 작업 패션에도 신경을 쓰는 시대인 만큼, 워크웨어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사진은 디월트 부스에 전시된 작업 의류들.

# 거리 분전함의 변신은 무죄!... 공공디자인 입고 재탄생

실사출력·디지털사이니지·조명 등 다양한 방식 적용해 개선



서초구의 디지털 사이니지형 분전함(왼쪽)과 실사출력 갤러리.



팝아트와 빗살무늬 토기 등의 디자인을 적용한 강동구의 사례.



연생태공원의 풍부한 색채를 담은 디자인 리더 크루의 스테레오타입 작품 등으로 분전함을 꾸몄다. 또한 강동구역사를 시각화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빗살무늬토기를 형상화한 분전함 디자인도 선보였다.

### ▲디자인 개선 통해 시민 의식 변화도 유도

제주시의 경우 도심 지역 분전함 인근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반복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청 인근, 서사라사거리, 탑동 일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분전함 위에 음료컵 등 각종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쌓이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과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 내 분전함에 이미지 사인물을 설치했다. 실사출력 래핑 방식으로 지역 내 설화와 관광정보 등을 소개하는 형태의 그래픽으로 꾸몄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고 1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특히 심각했던 제원아파트 사거리 주변 분전함 5곳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작업을 완료했다. 결과는 쓰레기 투기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검증된 만큼 상반기중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금천구도 거리 미관 개선을 위해 최근 독산로 일대 11개 분전함의 외관 개선을 마쳤다. 봄을 상징하는 꽃, 여름을 상징하는 물결 등 사계절을 표현한 문양이 적용된 새로운 구조의 외관을 적용했으며, '금천의 사계'와 '호암산 역사문화길' 등의 홍보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어두운 구도심의 야경 개선을 위해 오후부터는 경관조명을 통해 도로를 밝힐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신한중 기자

도로변에 세워진 커다란 분전함(지상배전기기)은 경관을 망가뜨리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 분전함 인근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다, 1층 상가의 경우 분전함 바로 앞 상가의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는 일도 잦다.

이처럼 분전함이 거리의 흉물로 치부되자 여러 지자체들이 개선사업에 나서면서 분전함이 최근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로 활용되는가 하면, 도시 지리를 알리는 안내판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렇게 분전함의 디자인과 활용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옥외광고 업계도 이 새로운 시장

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 ▲분전함이 거리의 예술 갤러리로 변신

현재 분전함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다. 서초구는 지난해 반포대로 예술의전당~성모병원사거리 약 5km 구간의 분전함을 개선한데 이어 올해 '반포대로 분전함 미관 개선사업'도 추진해 지난 2월 완료했다.

서초대로 대법원 앞과 방배로 함지박사거리~이수고가 구간의 분전함 22개를 디지털 사이니지와 실사출력 갤러리형 외함으로 새롭게 꾸몄다. 서초대로에 설치된 디지털사이니지형 외함은 차도와 보도쪽에 콘텐츠를 표출할 수 있

도록 설계된 시설로, 차도쪽에는 주야간 밝기에 따라 자동적인 조도 변환이 가능한 75인치 대형 LCD모니터가 설치됐으며, 보도쪽에는 실사 출력된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구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청년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서울 강동구도 분전함에 팝아트를 입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켰다. 양재대로 분전함에 MZ세대 취향에 맞춘 애니메이션·일러스트·팝아트를 입혀 예술거리로 재탄생시킨 '강동 거리 갤러리'를 구축한 것. 세계적인 비주얼 아티스트 '빠키(Vakki)'와 태권브이로 유명한 성태진 작가의 유쾌한 팝아트, 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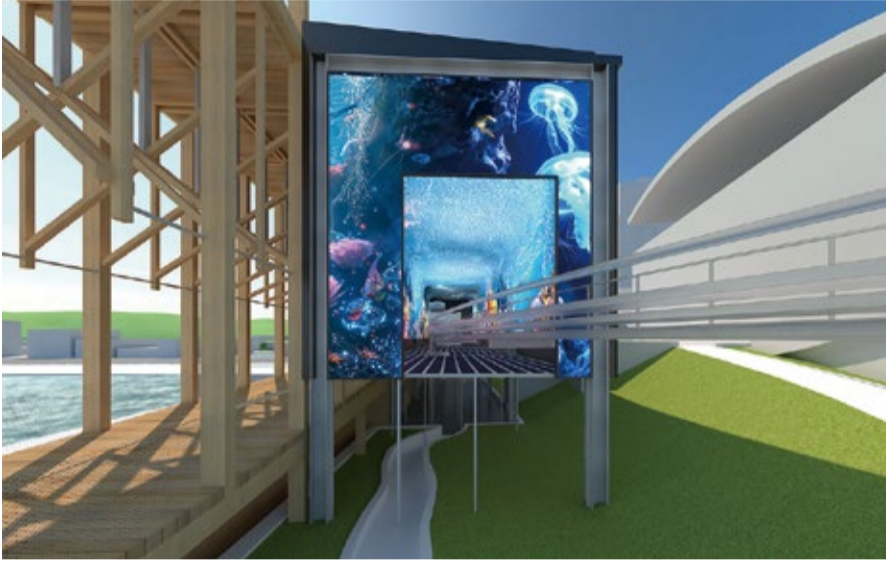


왼쪽부터 제주시, 금천구, 안양읍의 분전함 디자인 개선 사례.



# LED미디어가 관광 자원!... 지자체들, 조성에 총력

## 미디어터널, 초대형 인공달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시설 설치 '붐'



고래 미디어 터널 '더 웨이브(The Wave)' 내부 및 외부 건축물 조감도.



최근 다수의 지자체들이 미래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LED미디어 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역의 문화·역사·자연 경관과 연계되는 첨단 미디어 시설을 통해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첨단 기술과 디자인 기반의 LED미디어는 그 자체로 임팩트가 매우 강한 데다 다양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야경과 연계되는 미디어 시설의 경우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숙박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설들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울산시, 국내 최초 31m LED미디어 터널 조성

울산 남구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까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 5개 주요 관광시설을 차례대로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 핵심은 2027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는 '더 웨이브(The Wave)'다. 더웨이브는 장생포 전망대와 선박 매표소 기능을 결합한 복합 시설로 길이 31m, 높이 6m 규모로 조성되는 터널 구조의 초대형 미디어다. 해양을 테마로

운영되는 터널형 미디어는 국내 첫 시도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더웨이브에서는 고래와 수국 등 장생포를 상징하는 소재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상영된다. 이를 통해 터널 이용객들은 실제 바닷속을 걷는 듯한 몰입형 체험 및 첨단 기술 기반의 환상적인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다.

더웨이브는 내부 터널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로도 장생포의 랜드마크 성격을 가진다. 지상 2층, 높이 15m 규모의 목조 건축물로 삼나무를 활용해 구축되며, 전망대 상부에는 유영하는 대형 고래 조형물이 설치돼 자연친화적이면서 웅장한 이미지를 연출할 계획이다.

한편, 고래문화특구의 체험형 콘텐츠도 확충된다. 고래문화마을 일대를 순환하는 롤러코스터형 체험시설 '코스터카트'가 상반기에 지어진다. 전용 레일을 달리는 동력식 카트로, 최고 시속 4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웨일즈판타지움과 고래광장을 연결하는 공중보행교 '고래등길'도 등장한다. 길이 150m, 폭 3~4m 규모로 20m 높이에서 고래문화마을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 공간이다. 수국을 테마로 한 대형 조형물도 설치될 예정이다.

### ■강릉에 뜨는 지름 10m 초대형 'LED 달'

강원도 강릉시는 지름 10m 규모의 인공 달 조형물 구축에 나선다. 시는 2월 9일 'LED 달 조형물을 활용한 달빛아트쇼'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약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강릉의 대표적 역사·문화 자원인 오죽헌과 선교장, 경포생태저류지를 하나의 관광클러스터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포생태저류지에 미디어아트를 송출하는 초대형 LED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달 조형물은 달의 형상 그대로를 반영해 주간에는 조형물 자체로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되며, 야간에는 미디어 콘텐츠 '달빛아트쇼'를 상영하는 대형 스크린으로 활용된다.

시는 LED달 조형물의 설계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5~6월중 설치를 완료해 여름휴가 시즌인 7월 이전 공개할 계획이다. LED달 조형물 설치와 함께 다양한 경관조명 시스템과 포토존 시설도 조성해 야간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LED달 조형물이 조성되면 인근의 오죽헌, 선교장에서 경포호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 코스가 만들어지게 된

다. 특히 야경 관람을 위한 관광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강릉시 관계자는 "야간 콘텐츠는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음성군, 최초 미디어다리 '금빛인도교' 완공

충북 음성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금빛인도교'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금빛인도교는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보행 불편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추진된 보행교다. 지난 2020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2년 8월 기본계획 승인, 2024년 6월 시행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총사업비 32억1,800여만원을 들여 총연장 80m, 폭 3m 규모로 조성됐으며, 미디어파사드 시설을 적용해 새 랜드마크의 면모를 갖췄다. 다리에 설치된 화려한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응천의 밤 풍경에 아름다움을 더한다. 신한중 기자



강릉 경포생태저류지에 설치될 예정인 'LED달 조형물' 예상도.



충북 음성군 농촌중심지에 조성된 '금빛인도교' 미디어파사드.

(주)세영씨앤씨그래픽스 HP Sign&Graphics 부분판매/서비스 25년 연속1위!!

**HP 4.2세대 Roll & Flatbed 하이브리드 화이트 출시!!**  
 세계 No.1 Real White/White 황변X/White 유해 공기오염X/  
 White 유해 경고라벨 필요X/White 냄새X

**NEW!**



**HP 하이브리드 라텍스 R530 (1,626폭)**

- ✓ 4 X 8 사이즈 평판 출력 세계 No.1 품질
- ✓ 출력속도 시간당 31㎡(4 Pass 기준)
- ✓ 헤드 높이 최대 50.8mm, 고품질 화이트 잉크 탑재  
아크릴, 폼보드, 포맥스 등 다양한 소재 다이렉트 출력
- ✓ HP 픽셀 컨트롤로 최상의 색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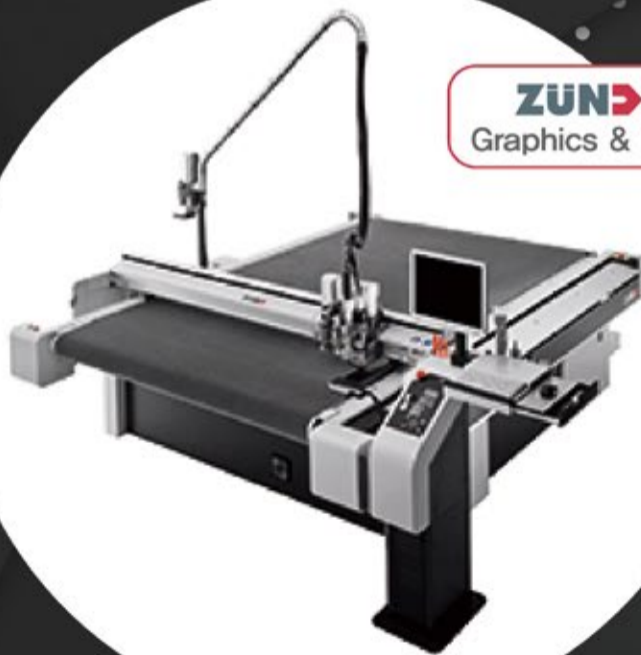
**HP 라텍스 730&830 프린터 (1,626폭)**

- ✓ 왜 HP라텍스 4.2세대 인가?
- ✓ 고부가가치 가성비 작업으로 비즈니스 향상
- ✓ 납기일 걱정없는 생산성과 라텍스 오버코트 잉크의 효율성
- ✓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성

**NEW!**



**ZUN 한국총판**  
 Graphics & Packaging



**ZUND G3 스위스 디지털 재단기**

- ✓ 실사 업체의 큰 고민, 후가공을 완벽하게 해결!  
(후가공 인원 4명 이상 대체 가능)
- ✓ 타사 대비 성능 · 속도 · 정밀도 · 다양성  
2배 이상 경쟁력 확보
- ✓ [가공품목]  
POP, 시트지, 폼보드, 포맥스, Box 포장,  
아크릴, 정밀 가공분야 외

**(주)세영씨앤씨그래픽스**

라텍스 호환 소재 **국내 최다 보유**  
 라텍스 전용 플렉스(조명용) 세계 최초 개발 및 국내 총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4  
 현대테라타워 가산DK 10층 1010호  
**문의 및 상담\_Tel. 02-2273-4211**

사인이 있는 풍경 - 아트팩토리 참기름 강화



아트팩토리 참기름의 전시관 및 카페-레스토랑 외부 전경 및 메인 사인.

# 낡은 참기름 공장이 문화·예술 공장으로 재탄생

강화 조양방직에 이어 같은 지역 내 공간 재생 사례로 이목

과거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에는 2만3,140㎡(약 7,000평) 규모의 대형 참기름 공장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참기름 공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했고, 이런 공장들이 그렇듯 낡은 시설만 덩그러니 방치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 공장이 지난 2024년 새롭게 태어났다. 참기름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예술과 여가를 즐기는 문화공간 ‘아트팩토리 참기름’으로 변했다.

아트팩토리 참기름은 방직공장을 리뉴얼한 강화의 명소 조양방직에 이어 지역 내 공간 재생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옛 공장 부지에 세워져 있던 가로 8m, 길이 120m의 공장 2개 동과 사무동을 보수해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카페-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의 관장은 유명 가수 이승철씨의 부인이자 사업가인 박현정씨다. 공간 이름도 부부가 지었다. 지금은 참기름 제조와 아무런 관련없이 건물 뼈대 등만 남았지만, 원래의 정체성과 역사성

을 이름에 담으라고 조언한 게 이승철 씨라 한다. 여기에 박 관장의 아이디어로 ‘매력’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참(charm)에 한자 ‘즐길 기(嗜)’, ‘곳간 림(廩)’을 붙여 조어를 만들어 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창고라는 의미라고 한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사인·디스플레이

이곳은 이름만큼이나 인·익스테리어와 사인 시스템도 아주 재미있다. 이곳 연출을 맡은 곳은 디지털 옥외광고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노크’로 콘텐츠 개발부터 시스템 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전시관 외에 카페-레스토랑에도 색다른 미디어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배너 대신 초박형의 대형 LED배너가 공간 곳곳을 장식하고 있으며, 벽면 한쪽 전체는 대형 LED스크린으로 꾸며졌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아주 흥미롭



다양한 LED미디어로 장식된 실내 공간의 모습.

다. 사람보다 거대한 스탠드 및 머그컵 등의 오브제를 활용해 마치 거인의 집에 들어온 것같은 연출로 공간의 재미를 더한다.

또한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승철씨가 보관하던 아날로그시대의 마지막 녹음 장비(콘솔)인 ‘SSL9000J/Stage Logic’와 LP 등을 중심으로 한 전시관 ‘이승철 음점실’도 마련돼 있어 팬들의 방문도 많다. 신한중 기자



색다른 디자인과 기술이 적용된 사인 시설들도 재미있는 볼거리다.

아크릴 재단기



아크릴 재단기 M2

- 아크릴 PC 포맥스 MDF 합판 PVC 하나의 롤날로 재단 가능
- 1220mm x 2440mm (4' x 8') 원장 최대 두께 30 T(mm) 재단 가능
- 집진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엠블트 아크릴 재단기 🔍

아크릴 가공기계



아크릴 면취기 M7



아크릴 절곡기 M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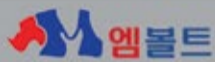
▶ 엠블트 아크릴 장비 🔍

시트지, 폼보드 평판 커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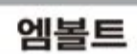


- 작업영역 최대 3000 x 3000 주문 제작 가능
- 시트지, 폼보드, 얇은 포맥스 페트지, 가죽, 박스지 재단
- 평판지그로 동일 사이즈 반복재단

▶ 레일베이스 평판 🔍



문의 전화 031-999-6733



디지털매체, 유튜브 콘텐츠, 기업 브랜딩·행사, 미디어아트 영상 기획&제작

CREATIVE VISUAL

영상 제작의 모든것 **그림형제플러스**

그림형제  
(주)그림형제플러스

견적문의 010-3742-9026

회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8길 20 3층



광고주의 매체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매체상담란에 매체판매정보를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H.P 010-4234-991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애드케이

서울마을버스광고  
(서울,경기)

02)333-6751 구미랑 팀장

화성이엔에이(주)

서울역광장 전광판, 명동 전광판, 신촌 전광판, 대구신세계백화점 외벽 전광판, 대구 범어네거리 전광판, 대구 동성로 전광판, 대구반월당역 터널전광판, 상인역 터널전광판, 대구 국제공항 모든 광고물, 대구 지하철 1,2,3호선 80%소유, 대구 시내버스 내부 전체 소유  
대표전화 : 053-766-2470  
정원중국장(010-3259-7539), 신준용팀장(010-4368-1111)



010-9254-9321

실리콘두께 창틀과 시트간격을조정하여컷터칼로 일정하게자르는도구  
사용용도:일정한선긋기,뿔팅후일정한 마감절단,강화도아 시트마감절단등

매체주를 모십니다

문의 : 010-4234-9917

## 이현의 글로벌 OOH 인사이드

## 온라인 과포화 시대 맞아 브랜드 전략의 중심에 선 옥외광고

온라인 광고의 한계 뚜렷해지면서 옥외광고의 물리적 가시성 크게 부각

이 면은 이현 세계옥외광고 협회(WOO) 한국대표가 세계 옥외광고의 현황, 트렌드, 전망을 취재 정리해서 전해주는 글로벌 OOH 코너입니다. '옥 뉴스(www.oohnews.co.kr)'를 접속하면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해외 소식과 사진 자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현  
WOO 한국대표

2026년을 맞아 브랜드 마케팅 환경은 분명한 변곡점에 들어섰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광고는 여전히 영향력이 크지만, 동시에 한계도 뚜렷해지고 있다. 불과 5년 전 효과를 보던 전략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옥외광고(OOH)는 과거의 매체가 아니라, 디지털 과포화 시대를 보완하는 핵심 전략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극심한 주목 경쟁의 장이 됐다. 브랜드들은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는 초스피드 속에서 몇 초의 시선을 얻기 위해 알고리즘 변화와 트렌드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한다. 일부 브랜드는 큰 보상을 받지만, 다수는 알고리즘 뒤편으로 밀려나 존재감을 잃는다. 여기에 온라인 사기, 가짜 계정,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해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신뢰도도 약화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가시성은 점점 '소유'가 아니라 '임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옥외광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클릭이나 노출 수를 두고 경

쟁하지 않는다.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며, 회피하기 어려운 노출을 제공한다. 빌보드는 스크롤로 넘길 수 없고 차단할 수도 없다. 일관되고 공개적인 존재로서, 다수가 동시에 경험하는 주목을 만든다. 대도시 환경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가시성이 곧 친숙함으로 이어지고, 친숙함은 여전히 브랜드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업무 지구에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했다. 센트럴 자카르타의 캔달 터널 인근 교통 허브에 설치된 대형 로봇 구조물은 모바일 게임 '모바일 레전드' M7 월드 챔피언십을 홍보하며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하루 12만 명 이상이 오가는 이 지역에서 해당 설치물은 타기팅이나 리타기팅 없이도 강력한 인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위치, 규모, 시각적 임팩트가 결합될 때 옥외광고가 얼마나 빠르고 지속적인 주목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통적인 빌보드 역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인도에서 진행된 카즈 24(CARS24) 옥외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연말·연초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시기를 겨냥한 도로 안전 공익 캠페인이다. 카즈24는 실제 교통사고로 심각하게 파손된 차량을 수거해 델리와 구르가온, 푸네 등 주요 도심 빌보드 전면에 그대로 부착했다.

빌보드에는 "Peekar chalaoge car, pahunchoge Haridwar(술 마시고 차를 몰면, 결국 하리드와르에 가게 된다)"라는 힌디어 혼합 구어체 문구가 사용됐다. 장례와 화장 문화와 연결되는 종교 도시 하리드와르의 상징성을 활용해, 음주운전의 결말이 곧 죽음일 수 있다는 점을 블랙유머 방식으로 경고한 것이다. 일부 지면에는 "Don't Drink and Drive" 등 직설적인 안전 메시지



온라인 게임 홍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설치된 대형 로봇 구조물. 위치와 규모, 시각적 임팩트를 결합시킨 성공적인 옥외광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사고 차량을 광고판에 직접 부착해 진행한 인도의 옥외광고 사례.

도 함께 노출됐다.

이러한 옥외광고의 힘은 단순한 주목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 노출을 통해 기억에 남고,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전환된다. 디지털 광고가 짧고 단절된 메시지로 소비되는 것과 달리, 빌보드는 하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이른바 '조용한 반복'은 과장이나 설득 없이도 브랜드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026년의 옥외광고는 단독 매체를 넘어 미디어 믹스의 중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과 경쟁하기보다는 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옥외광고와 모바일, 소셜미디어, 커넥티드TV를

결합한 캠페인은 광고 회상률과 투자 대비 효과가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공간에서 형성된 첫 주목이 이후의 디지털 접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2026년에 성과를 내는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가장 요란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가장 익숙한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옥외광고의 효과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다. 위치, 메시지의 명확성, 브랜드 힘은 각각 중요하지만, 이 요소들이 정렬될 때 옥외광고는 소음 속에서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된다.

## PDF 파일 휴대폰 전송 서비스 안내

SP투데이가 오프라인 매체인 인쇄신문(SP투데이), 온라인 매체인 인터넷홈페이지(www.sptoday.com)에 이어

모바일 매체(PDF 파일) 휴대폰 전송을 시작합니다.

PDF 파일 수신을 원하시는 독자는 010-4234-9917번에 '파일 수신 희망'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4234-9917, 02-336-9940

SP투데이

2002년 12월 2일 창간  
(2002년 10월 7일 등록 서울다-060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최병열 | 인쇄인 이승훈

www.sptoday.com

(0575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1길 23 유니빌딩 6층 (주)SP투데이 <월간>

편집국 02)336-9940

팩스 02)336-2003

광고·구독 문의 및 신청 010-4234-9917

구독료 연간 5만원 국민 : 293801-01-070728 입금계좌(예금주 : SP투데이)

주호일의 옥외광고 에세이 - 오십 일곱번째 이야기

지속가능한 옥외광고-2026년 업계 발전의 아젠다(agenda)

공공 미디어로서의 옥외광고는 지금...

2018년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 정부광고의 옥외광고 매체 집행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광고 시장 규모가 17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광고는 평균 1.3조 규모로 6%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52년부터 1994년까지 극장 스크린에 등장했던 ‘대한뉴스’와 비교해 보면 정부광고가 거대 광고산업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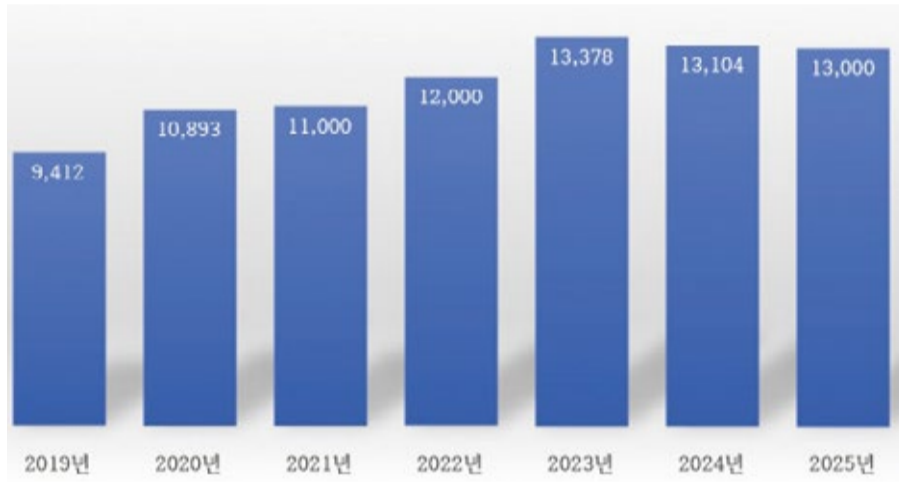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격 이상의 옥외 전광판은 20% 이내의 비율로 공익광고를 송출해야 한다. 주로 중앙 정부부처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공익광고를의 주체가 된다. 대부분 정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 홍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즉 전광판이 공공(공익)메시지 전달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의 등장은 공익광고를 단순한 정보 메시지를 넘어 고도화된 하나의 콘텐츠로 탈바꿈시켰다. 2024년 신세계스퀘어 오픈 당시 등장한 서울시 슬로건(Seoul my Soul)이 3D 아나몰픽 기법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크게 회자되었다. 이후 서울 중구청도 동일 기법을 활용하여 자치구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증가하는 도심 내 디지털 사이니지(전광판)들은 공공 메시지의 주요 타깃인 시민(국민)들의 일상에 접한 핵심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무 송출을 넘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하는 정부광고로 확대되었다. 또한 대형화된 매체를 활용하여 메시지의 주목도와 진



1952년부터 1994년까지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대한뉴스(출처: 나무위키 '대한뉴스').



정부광고 집행 추이(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뢰도를 높이고 있어 산업적 측면에서의 꾸준한 성장 또한 예상된다.

옥외광고는 도로, 광장 및 주요 교통 시설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물리적 특성을 지녔다. 그 결과 재난, 안전, 행정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는 ICT 기술과 맞물려 TV나 인터넷 매체

를 대체할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되고 있다.

도심 내 전광판은 공공과 상업의 이중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 미디어로서 모델링되고 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으며, 향후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과정에

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매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옥상 빌보드(고정형)와 고속도로 야립광고가 특정 기업과 브랜드의 상징적 매체로 자리매김했다면, 도심의 디지털 사이니지들은 공공성이라는 아젠다와 공공 미디어의 대표 매체라는 확고한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 기회를 활용한 업계의 적극적인 미디어 전략과 콘텐츠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임을 주지하자.



주호일

매일경제신문 옥외광고 팀장  
평택대 겸임교수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명동 신세계백화점 전광판을 통해 송출되고 있는 서울시의 'Seoul my Soul' 슬로건 공익광고.



겨울철 안전을 홍보하는 행정안전부의 공익광고 영상이 을지로입구역 교원빌딩의 M-CITY 전광판에서 상영되고 있는 모습.

1666-3571  
www.iclickart.co.kr

✉ : ICLICKART



# 트렌디한 이미지 배달 왔어요



저작권 확보된 콘텐츠는

아이클릭아트



에서 무제한 다운로드

# LED

KOREASIGN

# 전광판은 코리아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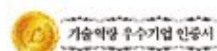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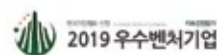
WWW.koreasign.co.kr



| 주 | 코리아싸인

T : 031-924-047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82-14



# [ 엘씨기획 ]

특수 채널 전문

## 엘씨기획 제품 라인업

에폭시전광 / 에폭시전후광 / 3D채널 / 갈바채널 / 스텐채널 / 골드스텐채널  
아크릴면발광 / 일반캡채널 / 캡채널전후광 / 일체형전광 / 일체형전후광



에폭시전광



에폭시전후광



3D에폭시



갈바후광



스텐후광



골드스텐후광



아크릴면발광



일체형



캡채널전후광

### < 채널 제작 및 견적 문의 >

견적 문의 010-3689-1883 / 010-7609-1883

이메일 lcsign@daum.net

웹하드 ID: lcsign / PW: 1234

### 전체 채널 단가표 확인하기

